

전국 전통시장 한자리에... 제22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충남 공주시 개막

- ‘모두의 시장,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주제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상점가 참여
- ‘장바구니 경매쇼’, ‘장날엔 떡볶이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 권택준 전상연 부산지회장 석탑산업훈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 이찬원·에일리 등 인기 가수 출연...3일간 풍성한 축하공연 펼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제22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및 백제 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22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상품과 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2천여 개 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고 약 28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행사로 이어져 왔다.

올해 박람회는 “모두의 시장,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슬로건으로 전통시장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국 12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세대별·계층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국 80개 시장이 참여하는 전시·판매관이 운영된다. 전시·판매관에서는 농수산물·축산물, 공예품,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개 시장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의 대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특히 특별관으로 조성된 20개 청년상인관에서는 청년 상인들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트렌디한 상품들을 선보여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 롯데ON, CJ대한통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현대이지웰 등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인다.

- * ① 카카오는 ‘프로젝트 단골’과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특채널 이벤트를 통해 시장과 고객 간 소통을 지원
- ② CJ대한통운은 택배 접수 부스를 운영해 상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배송 서비스를 소개하고, 휴일에도 정상 배송을 실시해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
- ③ 롯데ON과 현대이지웰은 라이브커머스 등 기획전을 운영해 전통시장 우수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

박람회 첫날인 9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국 장바구니 경매쇼’가 진행된다. 전국 우수시장의 대표 상품을 100원부터 시작하는 라이브 경매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합리적인 쇼핑 기회와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아트센터 고마 야외무대에서는 이찬원, 설하운, 허찬미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신바람 콘서트’가 오후 5시부터 열려 첫날 박람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행사 둘째 날인 10일에는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오전에는 야외무대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뮤지컬 ‘키즈드림콘서트 (캐치! 티니핑)’가 열려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전통시장의 떡볶이를 맛볼 수 있는 시식회와 고객 참여 이벤트로 구성된 ‘장날엔 떡볶이 투어’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저녁 시간대에는 에일리, 어반자카파, 하이키 등이 출연하는 ‘음악이 있는 풍경 콘서트’가 열려 가을밤의 청취를 더한다.

* 장날엔 떡볶이 투어 : 전국 전통시장의 유명 떡볶이 4종을 시식하고, 지역별 떡볶이 특징과 관련 이야기를 맞히는 퀴즈 및 떡볶이를 주제로 한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상인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인기 캐릭터 뮤지컬 ‘키즈드림콘서트(로보카 폴리)’와 상인들의 열정적인 무대인 ‘우리시장 뽐내기’ 장기자랑이 진행돼 마지막까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오후 4시 폐장과 함께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또한 박람회 기간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산성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매일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한편, 10월 9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일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소영 중기부 장관과 박수현 충청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상인과 충남 공주시민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권택준 전국상인연합회 부산지회장이, 산업포장은 손영한 학성새벽시장 상인회장이 수상했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권택준 전국상인연합회 부산지회장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호남 우수시장 박람회, 부산광역시 상인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손영한 학성새벽시장 상인회장은 새벽배송 시스템 구축과 공동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상인들의 열정과 지혜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과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 이용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람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2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누리집 (www.전국우수시장박람회.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성향웅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류희열	(044-204-7881)
			주무관	이상향	(044-204-7822)

